

WEBVTT

00:00:11.459 --> 00:00:12.432

반갑습니다.

00:00:12.532 --> 00:00:13.764

진민 쌤이고요.

00:00:13.864 --> 00:00:16.143

이제 다음 테마 두 번째입니다.

00:00:16.243 --> 00:00:20.256

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고 해서
여기는 행복이란 무엇인가

00:00:20.356 --> 00:00:23.249

그 동양과 서양의 각
사상이 있습니다.

00:00:23.349 --> 00:00:25.780

여기는 완전히 윤리 교과인데요.

00:00:25.880 --> 00:00:28.800

그 동양과 서양의 여러
유명한 사상가들이

00:00:28.900 --> 00:00:31.446

과연 우리 인간들에게
행복이란 이런 것이다.

00:00:31.546 --> 00:00:37.023

그 행복의 어떤 철학적인 정의,
사상적인 정의를 여러 개 내려놨습니다.

00:00:37.123 --> 00:00:38.648

보시는 것처럼 많은데요.

00:00:38.748 --> 00:00:41.963

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
정리해서 배우는 겁니다.

00:00:42.063 --> 00:00:43.156

아시겠죠?

00:00:43.256 --> 00:00:46.178

고3 수준의 윤리
사상, 생활과 윤리.

00:00:46.278 --> 00:00:47.755

그 수준까지 배우는 건 아니에요.

00:00:47.855 --> 00:00:52.102

아주 깊게는 안 들어갈 거니까
이런 행복론적 관점이 있구나.

00:00:52.202 --> 00:00:54.840

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

00:00:54.940 --> 00:00:55.843

아시겠죠?

00:00:55.943 --> 00:00:57.833

그러면 바로 갈게요.

00:00:59.772 --> 00:01:05.865

행복의 첫 번째 정의가
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.

00:01:05.965 --> 00:01:06.872

유명하신 분이죠?

00:01:06.972 --> 00:01:09.591

철학의 왕이라는 별명을
가지고 있습니다.

00:01:09.691 --> 00:01:13.128

만학의 아버지 그런
별명을 지니고 있는데

00:01:13.228 --> 00:01:16.558

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
행복이란 무엇이나,

00:01:16.658 --> 00:01:19.237

단 한마디로 이거예요.

00:01:19.337 --> 00:01:25.304

우리 현실적인 인간들은 당연히
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

00:01:25.404 --> 00:01:31.427

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
목적이 바로 행복이다, 라는 겁니다.

00:01:31.527 --> 00:01:35.664

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
행복론적 윤리설이라고 해요.

00:01:35.764 --> 00:01:39.619

또는 다른 말로 목적론적인
세계관, 이렇게 이야기하는데

00:01:39.719 --> 00:01:42.694

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.

00:01:42.794 --> 00:01:46.855

이제 윤리 강의할 때 제가 이
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, 이렇게.

00:01:48.239 --> 00:01:51.641

이게 무슨 뜻이나
하면 어떻게 볼까요.

00:01:51.741 --> 00:01:53.853

지금 우리 친구들
고등학교 1학년이죠?

00:01:53.953 --> 00:02:00.207

우리 고1 친구들은 지금
나이가 17살이죠, 17살?

00:02:00.307 --> 00:02:06.136
만 15, 16세일 텐데 우리 친구들은
지금 열심히 강의도 듣고 있고

00:02:06.236 --> 00:02:10.021
공부도 하고 있고 학교
내신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

00:02:10.121 --> 00:02:14.361
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도 가고
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.

00:02:14.461 --> 00:02:18.774
그중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과업일 텐데
어쩔 수가 없잖아, 학생이니까.

00:02:19.349 --> 00:02:22.023
그런데 왜 우리 친구들이
열심히 내신 관리도 하고

00:02:22.123 --> 00:02:24.801
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
숙제도 하고 하느냐,

00:02:24.901 --> 00:02:31.270
너희가 지금 고1이라는 지위에서
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는

00:02:31.370 --> 00:02:36.574
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
행복이면 이걸 참 좋겠지만

00:02:36.674 --> 00:02:38.924
아리스토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02:39.024 --> 00:02:44.063
무슨 말이나면 너희가 지금
현시점에서 이걸 해야

00:02:44.163 --> 00:02:49.106
그다음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가
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논리입니다.

00:02:49.206 --> 00:02:54.726
그래서 너무 세속적이고 상투적인
그런 예인데 그냥 들어줘.

00:02:54.826 --> 00:02:58.240
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
하면 수능도 잘 보고

00:02:58.340 --> 00:03:01.882
내신 관리도 잘하면 원하는
대학교에 갈 수 있죠.

00:03:01.982 --> 00:03:07.005
너희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이
있다면 갈 수 있을 거예요.

00:03:07.105 --> 00:03:09.442
그러면 너희가 원하는

목적을 달성하는 거죠.

00:03:09.542 --> 00:03:10.777
행복하죠.

00:03:10.877 --> 00:03:11.791
기분 좋죠.

00:03:11.891 --> 00:03:18.342
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이
다소 즐겁겠죠, 원한다면.

00:03:18.442 --> 00:03:22.780
그러면 대학 갔으면 이제
인생 끝났냐, 아니죠.

00:03:22.880 --> 00:03:27.490
또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
과목의 영역을 전공으로 잡고

00:03:27.590 --> 00:03:32.777
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원한다면
거기에 관련된 거기에서 요구되는

00:03:32.877 --> 00:03:35.415
각종 학문적 지식을 쌓아갈 거예요.

00:03:35.515 --> 00:03:38.450
또 대학 공부를 나름대로 하겠죠.

00:03:38.550 --> 00:03:42.679
그런데 이 전공 공부 자체가 행복이면
또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마는

00:03:42.779 --> 00:03:44.318
아리스토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.

00:03:44.418 --> 00:03:48.597
너희가 여기서 공부를 또 열심히
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관리하고

00:03:48.697 --> 00:03:56.475
또 토익시험보고, 참 시험의 연속인데
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간다면

00:03:56.575 --> 00:04:01.830
너희가 원하는 직장을
원한다면 얻겠죠, 잘한다면.

00:04:01.930 --> 00:04:08.221
그러면 드디어 통장에 월급도 꽂히고
엄마 옷도 사드리고 효도도 한번 해보고

00:04:08.321 --> 00:04:13.039
애인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여러
가지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.

00:04:13.139 --> 00:04:18.518
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, 아리스토텔레스는
지금 너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

00:04:18.618 --> 00:04:20.405

그다음 목적을 위해서.

00:04:20.505 --> 00:04:23.965

대학 가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
건 그다음 목적을 위해서,

00:04:24.065 --> 00:04:28.508

그다음 목적을, 그다음 목적을, 그다음
목적을 위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.

00:04:28.608 --> 00:04:34.887

그러면 계속 그다음 목적, 계속
목적에 목적에 목적을 지향하다 보면

00:04:34.987 --> 00:04:39.060

결국에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
있지 않겠냐는 겁니다.

00:04:39.160 --> 00:04:44.693

최종적인 궁극적인
목적에 다다르겠죠.

00:04:44.865 --> 00:04:47.464

이게 참 멋진 말인 것
같습니다, 개인적으로.

00:04:47.564 --> 00:04:53.284

이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
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,

00:04:53.384 --> 00:04:58.013

돈이냐, 권력이냐, 평수
높은 아파트냐, 스포츠카냐.

00:04:58.113 --> 00:04:59.395

다 아니라는 거예요.

00:04:59.495 --> 00:05:02.043

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.

00:05:03.174 --> 00:05:07.775

결국, 우리 인간들은 한 번
사는 인생 이 현실에서

00:05:07.875 --> 00:05:12.459

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
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.

00:05:12.559 --> 00:05:15.837

이게 아리스토의 행복론적
관점이 되겠습니다.

00:05:15.937 --> 00:05:21.729

물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
이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려면

00:05:21.829 --> 00:05:24.280

지금 첫 번째 단계인
고등학교 단계에서

00:05:24.380 --> 00:05:26.940

열심히 공부해야 되는
건 당연한 거죠.

00:05:27.040 --> 00:05:30.087

이걸 말하고 싶어서 예를 든 건
아니야, 그렇다는 겁니다.

00:05:30.187 --> 00:05:31.163

샘도 마찬가지예요.

00:05:31.263 --> 00:05:34.598

여러 학원 다니면서 여기서
촬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

00:05:34.698 --> 00:05:37.950

역시나 저만의 목적을
위해서 가는 겁니다.

00:05:38.050 --> 00:05:39.951

물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.

00:05:40.051 --> 00:05:43.451

유명세일 수도 있고 또는
저도 애 둘을 키우니까

00:05:43.551 --> 00:05:48.528

와이프랑 애들이 좀 더 안정적인
삶을 살 수 있게끔 돈을 버는 거고

00:05:48.628 --> 00:05:51.320

그리고 애들이 수능
잘 봤어요, 샘.

00:05:51.420 --> 00:05:56.232

감사해요, 이런 데에서
직접적인 어떤 성취감이라든가

00:05:56.332 --> 00:06:00.816

강사로서의 자존감이 가장 커질
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

00:06:00.916 --> 00:06:03.268

수강생이 많다, 돈
많이 번다, 유명하다.

00:06:03.368 --> 00:06:04.757

물론 중요할 수 있죠.

00:06:04.857 --> 00:06:08.414

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
좋은 때가 연락 올 때입니다.

00:06:08.514 --> 00:06:09.430

술 사주세요.

00:06:09.530 --> 00:06:11.213

이제 대학 갔으니까.

00:06:11.313 --> 00:06:15.031

샘 아니었으면 저 진짜 대학 못

왔을 것 같아요, 진짜 감사해요.

00:06:15.131 --> 00:06:18.584

이 한마디가 제일 기분
좋아요, 진짜 인간적으로.

00:06:19.015 --> 00:06:25.639

자랑입니다만 이번 쌤한테 배웠던
애제자가 전과목 만점이 나왔습니다.

00:06:25.739 --> 00:06:32.172

대치동 모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
친구인데 그 친구가 재수생이에요.

00:06:32.272 --> 00:06:36.748

전라도 친구예요,
익산인가 사는 친구인데

00:06:36.848 --> 00:06:42.860

전교 200명 중에서
160등 정도로 졸업했어요.

00:06:42.960 --> 00:06:47.737

그러니까 공부는 썩 잘 못 했죠,
많이 못 했죠, 솔직히 말하면.

00:06:47.837 --> 00:06:52.002

그래서 수시 쓰고 정시
쓰고 ALL 탈락.

00:06:52.102 --> 00:06:55.213

그러니까 한 군데도 못
붙어서 재수를 한 거예요.

00:06:55.313 --> 00:07:00.422

원하는 대학을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
원치 않는 대학도 떨어진 거니까.

00:07:00.522 --> 00:07:04.180

그래서 1년 동안 이
서울에서 자취했습니다.

00:07:04.280 --> 00:07:07.565

기숙학원 간 것도 아니고 엄마,
아빠랑 같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

00:07:07.665 --> 00:07:11.498

남자애인데 나이가
20살인데 혼자 자취방.

00:07:11.598 --> 00:07:14.120

말이 자취방이지
고시원이에요, 고시원.

00:07:14.220 --> 00:07:16.226

조그마한 단칸방 있잖아요.

00:07:16.326 --> 00:07:20.772

그래서 거의 11개월
정도 혼자 생활한 거죠.

00:07:21.997 --> 00:07:23.799

되게 열심히 했어요.

00:07:23.899 --> 00:07:25.637

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

00:07:25.737 --> 00:07:28.467

재수생들은 열심히 안 하는
재수생이 별로 없습니다.

00:07:28.567 --> 00:07:33.107

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
그래도 공부에 눈을 뜬 거죠.

00:07:33.207 --> 00:07:36.622

전과목 만점 받을 거라고
저는 상상도 못 했고

00:07:36.722 --> 00:07:40.792

그 친구가 국어, 수학을 그렇게까지
잘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.

00:07:40.892 --> 00:07:44.988

저는 사회탐구만
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.

00:07:45.088 --> 00:07:48.406

그런데 제가 수능 끝나고
베트남에 여행 가있었거든요.

00:07:48.541 --> 00:07:50.827

학원 쌤들은 다 가요, 거의.

00:07:50.927 --> 00:07:54.422

가족들하고 가고 있었는데
카톡이 온 겁니다.

00:07:54.522 --> 00:07:57.394

이번에 지진 나서 일주일
연기 됐잖아요.

00:07:57.494 --> 00:08:01.771

지진 날 때 저는 갔죠, 비행기를
예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

00:08:01.871 --> 00:08:05.076

카톡이 온 거예요, 수능 끝나고.

00:08:05.176 --> 00:08:06.412

감사합니다, 쌤.

00:08:06.512 --> 00:08:08.200

사탐 2과목 다 만점입니다.

00:08:08.300 --> 00:08:12.005

그래서 2과목 다
만점이구나, 수고했다.

00:08:12.105 --> 00:08:12.962

그리고 말았어요.

00:08:13.062 --> 00:08:14.479

다른 과목은 어떻게 잘 봤니?

00:08:14.579 --> 00:08:16.718

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
부담이거든요, 애들한테.

00:08:16.818 --> 00:08:17.922

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.

00:08:18.022 --> 00:08:19.340

그런데 온 거예요, 자기가 또.

00:08:19.440 --> 00:08:21.026

쌤, 그런데 좀 이상해요.

00:08:21.126 --> 00:08:22.998

그래서 뭐가 이상하냐?

00:08:23.098 --> 00:08:25.784

다 맞은 거 같다는
거예요, 국어랑 수학을.

00:08:25.884 --> 00:08:27.868

그래서 100, 100이냐?

00:08:27.968 --> 00:08:32.460

그러니까 가채점을 했는데
다 맞은 거 같다는 거죠.

00:08:32.560 --> 00:08:34.264

완전 대박이잖아요.

00:08:34.364 --> 00:08:38.291

전교 거의 꼴등 하던 애가,
꼴등까지는 아니지만 하위권이었잖아.

00:08:38.391 --> 00:08:40.977

200명 중에서 160등이면
하위권이이지, 뭐.

00:08:41.077 --> 00:08:42.659

그렇잖아?

00:08:42.759 --> 00:08:43.879

지금 놀아요, 그래서.

00:08:43.979 --> 00:08:46.925

수시 원서 쓴 거 다 무시하고.

00:08:47.025 --> 00:08:52.122

무시해야죠, 그냥 잠만 자고 있다가
이제 정시 원서 쓸 기간 되면

00:08:52.222 --> 00:08:54.645

그냥 서울대 경영학과
써서 가면 돼요.

00:08:54.745 --> 00:08:56.363

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.

00:08:56.463 --> 00:08:59.966

한 개도 안 틀렸는데 개가
안 붙으면 누가 붙습니까?

00:09:00.066 --> 00:09:00.838

그렇잖아요.

00:09:00.938 --> 00:09:02.613

그 친구 보고 저도 느낀
바가 되게 많습시다.

00:09:02.713 --> 00:09:05.574

이거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.

00:09:05.674 --> 00:09:08.238

물론 그 친구가 기본적인
머리는 있었겠지만

00:09:08.338 --> 00:09:10.831

그 머리 믿고 공부 안
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.

00:09:10.931 --> 00:09:12.613

하도 많이 봐서.

00:09:12.713 --> 00:09:19.812

그 친구는 진짜 1년 재수 기간
동안에 다음 목적을 향해 간 거죠.

00:09:19.912 --> 00:09:22.614

그 친구는 한 번
인생의 쓴맛도 봤고

00:09:22.714 --> 00:09:25.546

1년의 재수 기간 동안 여러
가지를 느꼈답니다, 진짜로.

00:09:25.646 --> 00:09:28.564

그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
봤을 때 대학 가서도

00:09:28.664 --> 00:09:32.214

술만 먹고 당구나 치고 하는 그런 한량의
대학생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.

00:09:32.314 --> 00:09:35.370

그러면 또 원하는
삶을 살게 되겠죠.

00:09:35.470 --> 00:09:39.267

아리스토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친구는
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향해서

00:09:39.367 --> 00:09:42.408

지금 한 걸음, 한 걸음
나아가고 있는 겁니다.

00:09:42.508 --> 00:09:43.664

나이는 겨우 20살이고

00:09:43.764 --> 00:09:48.686

저랑 거의 20년 차이 나는
친구인데 존경스럽더라고요.

00:09:49.703 --> 00:09:51.503
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

00:09:51.603 --> 00:09:54.415
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입니다.

00:09:54.515 --> 00:09:58.078
결국, 이 행복이라는 게
우리 인간들 현실적인 삶에

00:09:58.178 --> 00:10:00.855
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.

00:10:00.955 --> 00:10:02.010
오케이?

00:10:02.110 --> 00:10:05.577
그리고 뒤에 나오는 워딩은
이게 되게 윤리적인 내용이어서

00:10:05.677 --> 00:10:08.797
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
철학자 중에서,

00:10:08.897 --> 00:10:12.725
소크라테스, 플라톤과 마찬가지로
이성 중심의 철학자입니다.

00:10:12.825 --> 00:10:14.371
그런데 깊은 이야기는
하지 않겠습니다.

00:10:14.471 --> 00:10:16.970
이건 철학 강의가 아니니까 지금.

00:10:17.070 --> 00:10:19.482
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

00:10:19.582 --> 00:10:23.605
아리스토는 행복이 인생의
궁극적인 목적이고

00:10:23.705 --> 00:10:26.285
그 궁극적인 목적인
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

00:10:26.385 --> 00:10:30.131
꼭 필요한 영혼의 기능을 이성의
기능이라 부른 거예요.

00:10:30.231 --> 00:10:32.190
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요.

00:10:32.290 --> 00:10:35.927
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
중심의 철학자인가 보다.

00:10:36.027 --> 00:10:37.780

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

00:10:37.880 --> 00:10:39.178
아시겠죠?

00:10:39.278 --> 00:10:46.276
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
지혜, 용기, 절제, 중용.

00:10:46.376 --> 00:10:49.435
그런 각종 관련된 철학적인
덕들이 있습니다.

00:10:49.535 --> 00:10:52.943
이런 덕들을 얻게
된다면 원하는 목적,

00:10:53.043 --> 00:10:56.775
궁극적인 목적의 행복까지도
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.

00:10:56.875 --> 00:11:00.241
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, 오케이?

00:11:00.341 --> 00:11:04.192
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생의
궁극적 목적으로 보았다.

00:11:04.292 --> 00:11:05.846
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

00:11:05.946 --> 00:11:11.691
다음, 두 번째는 이제 보시는
것처럼 동양 3대 철학사상이에요.

00:11:11.791 --> 00:11:14.720
유, 불, 도를 정리하는 건데요.

00:11:14.820 --> 00:11:17.294
일단 첫 번째로 공자
선생님의 유교.

00:11:17.394 --> 00:11:20.632
그러니까 유학부터
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00:11:21.263 --> 00:11:23.812
너무 방만하게 강의는
하지 않을 겁니다.

00:11:23.912 --> 00:11:27.102
유학을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.

00:11:27.202 --> 00:11:33.582
이 중국의 유학이라는 철학은, 사상은
도덕을 강조하는 겁니다, 도덕.

00:11:33.682 --> 00:11:35.530
그러니까 봐 봐.

00:11:35.630 --> 00:11:41.329

하늘로부터 부여받는 도덕적인 본성을
잘 유지 보존하고 키워가면서

00:11:41.429 --> 00:11:45.200

다른 사람들과 함께
더불어 살아가면서.

00:11:45.753 --> 00:11:48.056

이게 어질 인
자죠, 한자어로.

00:11:48.156 --> 00:11:51.691

이 어짐을 실현하는 것이
바로 행복이라는 거죠.

00:11:51.791 --> 00:11:56.062

이걸 더 간단하게 줄여드리면
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,

00:11:56.162 --> 00:11:58.107

착하게 사는 거예요, 그냥.

00:11:58.207 --> 00:12:03.405

하늘의 이치, 이걸 윤리에서 천리라
그래요, 한자 그대로 하늘의 이치.

00:12:03.505 --> 00:12:04.274

천리.

00:12:04.374 --> 00:12:09.875

유학에서는 이 하늘의 이치인
천리가 절대적인 선인 거고

00:12:09.975 --> 00:12:14.666

우리 인간들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
바로 하늘인 겁니다, 하늘.

00:12:14.766 --> 00:12:17.929

그래서 어른들이 이런
말 많이 하잖아요.

00:12:18.029 --> 00:12:20.673

네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!

00:12:20.773 --> 00:12:22.183

그 하늘이 이 하늘인 겁니다.

00:12:22.283 --> 00:12:26.380

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기준,
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.

00:12:26.480 --> 00:12:28.724

또 어디를 우러러 한
점 부끄럼 없기를?

00:12:28.824 --> 00:12:29.622

하늘이요.

00:12:29.722 --> 00:12:31.331

무슨 별 받을 놈아?

00:12:31.431 --> 00:12:32.372
천벌이요.

00:12:32.472 --> 00:12:34.965
여기서 말하는 하늘이
다 유학에서 강조하는

00:12:35.065 --> 00:12:37.779
도덕적인 절대 기준의 하늘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12:37.879 --> 00:12:41.619
그러니 천리에 부합하는 삶.

00:12:41.719 --> 00:12:42.565
이해돼?

00:12:42.665 --> 00:12:46.053
어떤 인간의 사적인 욕망에
휘둘리지 않는 삶.

00:12:46.153 --> 00:12:51.441
그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
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

00:12:51.541 --> 00:12:56.516
일종의 공동체주의적인 덕목을
추구하는 삶, 이게 행복한 거예요.

00:12:56.616 --> 00:12:59.599
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자,
이해되겠죠?

00:12:59.699 --> 00:13:05.578
그래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행복은 다시
한번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본성.

00:13:05.678 --> 00:13:11.045
이 선한 도덕적인 하늘의
본성을 잘 유지, 보존하면서

00:13:11.145 --> 00:13:15.564
공동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,
같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

00:13:15.664 --> 00:13:17.981
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어진.

00:13:18.081 --> 00:13:21.537
도덕적인 덕목을 실현시키는
것이 유학에서 강조하는

00:13:21.637 --> 00:13:24.826
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
그것이 행복아니겠느냐.

00:13:24.926 --> 00:13:28.569
이게 유학에서 말하고
싶은 행복의 뜻입니다.

00:13:28.669 --> 00:13:29.436

이해되겠죠?

00:13:29.536 --> 00:13:33.129

도덕적인 삶, 이렇게
정리하시면 됩니다.

00:13:33.229 --> 00:13:34.018

오케이?

00:13:34.118 --> 00:13:36.537

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.

00:13:36.637 --> 00:13:40.530

다음요, 동양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.

00:13:40.630 --> 00:13:44.549

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,
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.

00:13:44.649 --> 00:13:49.015

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,
역시나 불교라는 종교와 사상에

00:13:49.115 --> 00:13:51.877

어떤 이상적인 경지를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13:51.977 --> 00:13:55.566

한자가 좀 많아서 힘들 텐데 봐봐.

00:13:55.666 --> 00:13:59.573

불교는 이 한자어, 생로병사.

00:13:59.673 --> 00:14:04.935

이 생로병사와 같은 괴로움을
벗어난 상태가 바로 행복이고

00:14:05.035 --> 00:14:06.586

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.

00:14:06.686 --> 00:14:10.084

밑에도 나와 있지만
일단 제가 정리해드리면

00:14:10.184 --> 00:14:15.539

이 생로병사와 같은 현실적인 고통과
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

00:14:15.639 --> 00:14:18.909

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, 이걸
너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

00:14:19.009 --> 00:14:25.013

해탈의 경지라고 하는데 이걸
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, 열반.

00:14:25.113 --> 00:14:29.868

인도말로 Nirvana라고 그래요,
이거 안 쓸게 날바나 열반.

00:14:29.968 --> 00:14:31.820

해탈과 동의어라 보시면 돼요.

00:14:31.920 --> 00:14:36.777

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전부
다 소멸되고 사라진 상태.

00:14:36.877 --> 00:14:40.627

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
이상적인 상태를 해탈의 경지

00:14:40.727 --> 00:14:45.163

또는 열반이라고 하는
겁니다, 이해되겠습니까?

00:14:45.263 --> 00:14:48.987

불교는 인간들의 인생 전체를
고통으로 보거든요.

00:14:49.539 --> 00:14:52.179

생, 태어나서 사는 거.

00:14:52.279 --> 00:14:54.399

로, 늙어가는 거.

00:14:54.499 --> 00:14:56.345

병, 병드는 거.

00:14:56.445 --> 00:14:59.466

그리고 마지막 사,
죽음에 이르는 것.

00:14:59.566 --> 00:15:05.544

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 전생의
과정인 거예요, 불교는요.

00:15:05.644 --> 00:15:09.178

불교는 되게 약간 염세적인
성격도 띠고 있습니다.

00:15:09.278 --> 00:15:12.405

인간의 인생을 그냥 다
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다.

00:15:12.505 --> 00:15:13.356

이해되겠죠?

00:15:17.163 --> 00:15:20.870

그런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
위한 것이 바로 뭐냐,

00:15:20.970 --> 00:15:23.331

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자는 거죠.

00:15:23.431 --> 00:15:25.322

죽자는 게 아니에요.

00:15:25.422 --> 00:15:28.774

왜냐하면, 불교는 아시는 분은
아시겠지만 죽어도 또 태어납니다.

00:15:28.874 --> 00:15:31.803

이걸 윤회, 거듭
태어남이란 뜻인 건데

00:15:31.903 --> 00:15:36.590
열반과 해탈 경지에 도달하게
되면 다시 안 태어나는 거예요.

00:15:36.690 --> 00:15:40.947
드디어 이 지긋지긋한
고통의 연속인 이 삶에

00:15:41.047 --> 00:15:42.904
어떤 그런 끈을 끊어버리는 거죠.

00:15:43.004 --> 00:15:45.517
이걸 해탈, 열반이라고
하는 거예요, 이해되죠?

00:15:45.617 --> 00:15:49.959
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
봐보면 교과서 워딩인데

00:15:50.059 --> 00:15:53.906
불교는 인간의 본성을
불성으로 봅니다.

00:15:54.006 --> 00:15:57.471
오염되지 않는 깨끗한
부처님의 성질.

00:15:57.571 --> 00:15:58.936
이걸 불성이라고 해요.

00:15:59.036 --> 00:16:02.669
그래서 불교는 인간의
본성을 불성으로 봅니다.

00:16:02.769 --> 00:16:08.191
이런 깨끗한 불성을 바탕으로
'나'라는 집착을 벗어던져라.

00:16:08.291 --> 00:16:10.816
탐욕과 집착과 욕심을 버려라.

00:16:10.916 --> 00:16:15.110
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네 인생
전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다, 인마.

00:16:15.210 --> 00:16:17.227
이게 불교의 기본 입장이거든요.

00:16:17.327 --> 00:16:19.945
그래서 '나'라는 어떤 편견과 집착.

00:16:20.045 --> 00:16:24.571
이런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
수행,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.

00:16:24.671 --> 00:16:27.712
그리고 불교도 유학과 비슷하죠?

00:16:27.812 --> 00:16:28.752
보세요.

00:16:28.852 --> 00:16:31.221
나만 해탈하면 되는
게 아닌 겁니다.

00:16:31.321 --> 00:16:33.797
아직까지 해탈의 경지에
도달하지 못하고

00:16:33.897 --> 00:16:37.989
현실적인 고통에서 허덕허덕
거리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.

00:16:38.089 --> 00:16:41.818
이 어린 중생들을
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

00:16:41.918 --> 00:16:43.906
그런 삶의 방식을
추구하는 게 불교예요.

00:16:44.006 --> 00:16:49.217
그래서 불교도 얼핏 보면 되게
개인주의적인 성격의 종교 같잖아.

00:16:49.317 --> 00:16:50.248
그런데 아니야.

00:16:50.348 --> 00:16:53.522
불교는 되게 대중적인
성격이고 불교는 되게

00:16:53.622 --> 00:16:56.717
사회 참여적인 그런
사상이 종교입니다.

00:16:56.817 --> 00:17:00.242
일종의 공동체주의를
지향한다고 보는 것은

00:17:00.342 --> 00:17:02.659
유학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.

00:17:02.759 --> 00:17:05.311
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
앗싸, 끝났다.

00:17:05.411 --> 00:17:09.980
이게 아니고 아직 고통에서
허덕거리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

00:17:10.080 --> 00:17:14.096
같이 구제하러 가는 그런
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.

00:17:14.196 --> 00:17:14.857
이해되겠죠?

00:17:14.957 --> 00:17:18.335

타인을 같이 배려하는 그런
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.

00:17:18.435 --> 00:17:23.226
그래서 '나'라는 집착과 편견을
버리고 중생까지 구제하는

00:17:23.326 --> 00:17:26.983
그런 공동체주의적인
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

00:17:27.083 --> 00:17:29.574
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

00:17:29.674 --> 00:17:33.631
여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
불교에서 꿈꾸는 이상이오,

00:17:33.731 --> 00:17:36.187
행복이다, 라는 것이죠.

00:17:36.287 --> 00:17:37.412
어렵지 않죠?

00:17:37.512 --> 00:17:39.571
유학은 도덕적인 삶.

00:17:39.671 --> 00:17:42.947
불교는 해탈, 열반.

00:17:43.047 --> 00:17:44.011
되겠죠?

00:17:44.111 --> 00:17:46.650
이렇게 정리하면 돼요.

00:17:46.750 --> 00:17:49.591
다음에 세 번째는 도가인데요.

00:17:50.294 --> 00:17:54.330
노자와 장자라는 중국의
현학자를 만나는 겁니다.

00:17:54.430 --> 00:17:59.067
되게 약간 우리랑 정신세계가
많이 다르신 분들입니다.

00:17:59.167 --> 00:18:02.163
아마 무위자연, 이런
한자어는 중학교 시절

00:18:02.263 --> 00:18:05.645
도덕 교과서에서 한두 번은
봤을 거야, 무위자연.

00:18:05.745 --> 00:18:11.576
상선약수, 물아일체, 그런
한자어들을 많이 외우셨을 텐데

00:18:11.676 --> 00:18:13.123
그 도가예요.

00:18:13.223 --> 00:18:21.200
보시면 도가는 자연 그대로 타고난
그대로의 본성에 주목하는 겁니다.

00:18:21.300 --> 00:18:23.856
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
거예요, 도가는요.

00:18:23.956 --> 00:18:27.066
그냥 자연 그대로의 본성이요.

00:18:27.166 --> 00:18:31.590
인위적인 인간 중심적인 가치가
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

00:18:31.690 --> 00:18:36.669
무위, 그 자체의 본성이 바로
도가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인데요.

00:18:36.769 --> 00:18:42.436
그런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서
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,

00:18:42.536 --> 00:18:45.757
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
모습으로 살아가는 게

00:18:45.857 --> 00:18:49.242
도가에서 강조하는
행복이고 이상인 거죠.

00:18:49.342 --> 00:18:50.605
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.

00:18:50.705 --> 00:18:53.067
적어드릴게요, 무위자연.

00:18:53.167 --> 00:18:56.882
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냥
살아가라, 라는 거죠.

00:18:56.982 --> 00:19:00.428
좀 어려운 말로 바꿔드리면
순응주의적 철학인 거죠.

00:19:01.164 --> 00:19:04.478
이 거대한 자연의
섭리에 어긋나는 삶을

00:19:04.578 --> 00:19:07.013
인위적인 삶을 살지 마라.

00:19:07.113 --> 00:19:09.305
물 흐르듯 그냥 살아가라,
라는 것이예요.

00:19:09.405 --> 00:19:14.128
자연의 흐름에 이 거대한 도의
관점에서 순응적인 삶을,

00:19:14.228 --> 00:19:18.016

무위자연을 추구하는 그런
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

00:19:18.116 --> 00:19:22.238

도가에서는 행복인
거죠, 이해되겠죠?

00:19:22.338 --> 00:19:25.795

이게 동양 철학에서
강조하는 내용입니다.

00:19:25.895 --> 00:19:28.877

그러니까 각각의 유불도에서
추구하는 행복은

00:19:28.977 --> 00:19:31.116

이 사상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

00:19:31.216 --> 00:19:37.974

어떤 최고의 지향점에 해당되는 것이
행복이 되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19:38.074 --> 00:19:43.941

동양 철학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
이제 서양 쪽도 한번 봐볼게.

00:19:44.041 --> 00:19:48.319

아까 고대 그리스에
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살펴봤죠?

00:19:48.419 --> 00:19:55.254

그러면 고대 그리스 철학 말고 다른
서양 사상가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

00:19:57.339 --> 00:20:01.005

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

00:20:01.105 --> 00:20:04.202

이분도 시기적으로 보면
고대 서양 철학입니다.

00:20:04.302 --> 00:20:07.069

엄밀하게 말하면 이제
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하는데

00:20:07.169 --> 00:20:10.059

그 헬레니즘 철학이
이 스토아까지예요.

00:20:10.159 --> 00:20:11.985

이 스토아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.

00:20:12.085 --> 00:20:14.589

학과 이름입니다.

00:20:14.689 --> 00:20:17.678

스토아 철학을 만든
사람의 성함의 제논.

00:20:17.778 --> 00:20:19.140

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있고요.

00:20:19.240 --> 00:20:23.083

몰라도 되고 그냥 에피쿠로스
그리고 스토아.

00:20:23.183 --> 00:20:26.165

이 두 개의 철학적인
그룹이 있었습니다.

00:20:26.265 --> 00:20:29.925

그중 에피쿠로스는 어디까지
가르쳐드려야 되나요,

00:20:30.025 --> 00:20:34.531

다 가르쳐드릴 수도 없고
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정리할게요.

00:20:35.204 --> 00:20:45.314

에피쿠로스가 꿈꿨던 진정한 행복이란
바로 정신적 쾌락 상태입니다.

00:20:45.414 --> 00:20:50.885

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쾌락이다,
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돈 많은 거,

00:20:50.985 --> 00:20:55.496

여자친구 사귀는 거,
넓은 아파트 갖는 거.

00:20:55.596 --> 00:21:02.245

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런
감각적, 육체적, 물질적 쾌락은 가짜다,

00:21:02.345 --> 00:21:09.511

저급하다, 이렇게 평가한 최초의
쾌락주의자가 이 에피쿠로스 할아버지예요.

00:21:09.611 --> 00:21:13.624

정신적인 쾌락이 좀 더 수준
높고 고상한 쾌락 아니냐.

00:21:13.724 --> 00:21:18.089

물질적 감각적 쾌락은
금방금방 사라지고

00:21:18.189 --> 00:21:23.462

그런 육체 쾌락은 더 강력하고 더
황홀한 쾌락을 계속 좇잖아.

00:21:23.562 --> 00:21:24.384

그렇잖아.

00:21:24.484 --> 00:21:25.558

한번 생각해봐.

00:21:25.658 --> 00:21:28.363

너희가 맛있는 아이스크림
하나 먹은 거야.

00:21:28.463 --> 00:21:29.957

그런데 이걸 또 먹잖아?

00:21:30.057 --> 00:21:34.334
맛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걸
100번 먹잖아, 그러면 질립니다.

00:21:34.434 --> 00:21:36.636
이게 우리 인간들의 감각이에요.

00:21:36.736 --> 00:21:38.416
적응되거든요.

00:21:38.516 --> 00:21:39.602
그러면 뭘 원할까요?

00:21:39.702 --> 00:21:44.900
좀 더 달콤하고 좀 더 맛있고 좀
더 새콤한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.

00:21:45.000 --> 00:21:47.109
그런데 만약에 그런
아이스크림이 또 나온 거예요.

00:21:47.209 --> 00:21:49.360
그러면 또 많이 먹겠죠.

00:21:49.460 --> 00:21:51.248
그러면 또 질려요.

00:21:51.348 --> 00:21:51.954
그러면요?

00:21:52.054 --> 00:21:56.228
또 더 맛있는, 더 맛있는, 더
맛있는,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

00:21:56.328 --> 00:22:02.164
계속 원하게 되어있는 게 우리 인간의
감각적 육체적인 욕망의 특성입니다.

00:22:02.264 --> 00:22:03.483
이해되죠?

00:22:03.583 --> 00:22:06.937
이게 절체가 안 되면
그때는 쾌락이 아니고

00:22:07.037 --> 00:22:08.798
거꾸로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.

00:22:08.898 --> 00:22:13.142
내 입맛에 맞는 아이스크림이 언제
나오는 거야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22:13.242 --> 00:22:15.423
짜증이 나는 거죠.

00:22:15.523 --> 00:22:21.560
우리 남자 강사분들도 이거 욕하는
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인데

00:22:21.660 --> 00:22:24.443
남성들이 집착하는 게 뭐게요?

00:22:24.543 --> 00:22:25.280
자동차입니다.

00:22:25.380 --> 00:22:28.375
아빠들도 비슷할 거야,
차, 자동차.

00:22:28.475 --> 00:22:33.629
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
첫 직장 얻고 나서

00:22:33.729 --> 00:22:36.269
중고차를 하나 사죠,
샘도 마찬가지였어요.

00:22:36.369 --> 00:22:38.823
좀싼 거, 연습도 해야 되고.

00:22:38.923 --> 00:22:41.815
한 2년, 3년 타면 질립니다.

00:22:41.915 --> 00:22:47.409
도로에 지나가는 중형 세단, 넓게는
외제 스포츠카 비싼 거 몇억 짜리.

00:22:47.509 --> 00:22:50.939
이런 거 보면 나는 언제 저런
거 타나, 이렇게 돼요.

00:22:51.039 --> 00:22:54.547
그리고 학원 강사, 소위
말해서 짬밥이 쌓이고

00:22:54.647 --> 00:22:59.767
돈도 좀 더 벌게 되면 남자가 가장
먼저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뭐게요?

00:22:59.867 --> 00:23:02.345
양복이랑 구두랑 시계가
아니고 자동차입니다.

00:23:02.445 --> 00:23:03.412
샘도 그랬거든요.

00:23:03.512 --> 00:23:06.434
그러면 한 칸 올라가요,
좀 더 좋은 거로요.

00:23:06.534 --> 00:23:10.614
그리고 또 한 2, 3, 4년
지나면 이제 나도 지위가 있는데

00:23:10.714 --> 00:23:14.826
이제 독일 수입차 한번 타 봐야 되는
거 아니야,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

00:23:14.926 --> 00:23:19.034
그래서 막말로 벤츠를 타면

벤츠를 또 3, 4년 타면

00:23:19.134 --> 00:23:22.311
독일 차는 지겹네, 다른 거 없나?

00:23:22.411 --> 00:23:26.761
막말로 람보르기니, 부가티,
맥라렌, 애스턴 마틴.

00:23:26.861 --> 00:23:28.030
샘도 다 압니다.

00:23:28.130 --> 00:23:31.250
그런 차들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.

00:23:31.350 --> 00:23:35.395
절제가 안 되면 그 차를 갖고
싶어 하는 욕망에 의해서

00:23:35.495 --> 00:23:38.674
고통과 짜증에 휩싸이게 돼요.

00:23:38.774 --> 00:23:41.094
진짜 천재적인 할아버지입니다.

00:23:41.194 --> 00:23:43.132
그런 건 진정한 쾌락이
아니지 않냐.

00:23:43.232 --> 00:23:48.771
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다, 이 멍청한
놈들아, 라고 일갈을 하시는 거예요.

00:23:48.871 --> 00:23:49.615
이해되겠죠?

00:23:49.715 --> 00:23:52.875
절제의 미덕과 정신적
쾌락을 추구하는 것이

00:23:52.975 --> 00:23:57.141
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느냐, 이게
에피쿠로스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.

00:23:57.303 --> 00:24:00.297
진정한 쾌락의 개념이 되는 거죠.

00:24:00.397 --> 00:24:05.219
그러니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
불안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

00:24:05.319 --> 00:24:07.000
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.

00:24:07.100 --> 00:24:09.345
더 맛있는 아이스크림,
더 좋은 자동차,

00:24:09.445 --> 00:24:13.211
그건 진짜 쾌락이 아니야,
인마, 라는 것입니다.

00:24:13.311 --> 00:24:16.084

맞는 말씀이시긴 하죠.

00:24:16.184 --> 00:24:17.660

그렇죠, 다음.

00:24:17.760 --> 00:24:20.213

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
스토아는 뭐냐,

00:24:20.313 --> 00:24:22.505

이 사람은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.

00:24:22.605 --> 00:24:25.892

정념이라는 건 불필요한
감정, 욕망 그런 뜻이야.

00:24:25.992 --> 00:24:30.529

그러니까 불필요한 감정과 욕망에
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

00:24:30.629 --> 00:24:34.542

그런 초연한 그런 태도로
자연의 질서에 따라서

00:24:34.642 --> 00:24:39.146

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
진정한 쾌락이 아니겠느냐.

00:24:39.246 --> 00:24:39.936

봐라.

00:24:40.036 --> 00:24:45.744

이 자연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면서
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.

00:24:45.844 --> 00:24:49.640

이거 아까 방금 배운 동양
철학이랑 비슷한 게 있죠.

00:24:49.740 --> 00:24:52.625

바로 자연의 질서에
순응하면서 살자.

00:24:52.725 --> 00:24:57.695

이 도가 철학과 서양의 스토아
철학 관점이 거의 유사합니다.

00:24:57.795 --> 00:25:01.435

자연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면서
마음이 흔들리지 않게

00:25:01.535 --> 00:25:04.757

동요하지 않는 그런 심리
상태를 가지고 있는

00:25:04.857 --> 00:25:09.872

그런 완벽한 이성적 상태를 최고의
상태, 최고의 행복으로 보는

00:25:09.972 --> 00:25:14.608

그런 철학이 스토아 철학인
거죠, 이해되겠나?

00:25:14.708 --> 00:25:17.214

그래서 하나만 더 가르쳐드릴게요.

00:25:17.314 --> 00:25:18.604

샘 생각인데요.

00:25:18.704 --> 00:25:22.154

너희 학교에서 이 통합사회
가르치는 교사분들이

00:25:22.254 --> 00:25:25.968

이제 어디까지 가르칠 거냐,
라는 건 학교 교사분들 마음인데

00:25:26.068 --> 00:25:28.845

그건 그분들의 재량이니까
뭐라 할 수는 없는데

00:25:28.945 --> 00:25:32.456

아마 여기까지도 가르쳐주시는
샘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.

00:25:32.556 --> 00:25:33.832

그리스말인데요.

00:25:33.932 --> 00:25:35.397

하나만 적어드릴게요.

00:25:35.497 --> 00:25:40.129

에피쿠로스의 정신적 최고의 행복
상태, 쾌락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

00:25:40.229 --> 00:25:42.648

ataraxia라고
합니다, 아타락시아.

00:25:42.748 --> 00:25:46.002

발음대로 그냥 쓰시면
돼요, ataraxia.

00:25:46.435 --> 00:25:52.808

번역하면 편안한 마음 상태,
평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25:52.908 --> 00:25:57.412

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완벽한
이성 중심의 철학이에요.

00:25:57.512 --> 00:26:03.227

그래서 애네들은 그리스말로
apatheia라고 그래요, 아파테이아.

00:26:03.327 --> 00:26:06.390

한자어로 직역하면
부동심이라고 합니다.

00:26:06.490 --> 00:26:07.783

부동심.

00:26:07.883 --> 00:26:12.622

부동, 차렷, 이게 부동
자세잖아, 움직이지 않는.

00:26:12.722 --> 00:26:15.537

흔들리지 않는 심,
마음이라는 뜻이에요.

00:26:15.637 --> 00:26:19.002

그래서 불필요한 감정과
정념에 흔들리지 않는

00:26:19.102 --> 00:26:21.737

그런 냉철한 이성적
상태를 꿈꾸는 게

00:26:21.837 --> 00:26:24.488

바로 스토아의 관념인 거죠.

00:26:24.588 --> 00:26:28.146

그래서 아까 들어드린 예를
한 번만 써 먹어보면

00:26:28.246 --> 00:26:32.228

제가 만약에 마티즈를 타고
다녀도 옆에 도로가를 봤는데

00:26:32.328 --> 00:26:36.179

멋있는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거예요.

00:26:36.279 --> 00:26:39.942

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
세속적이고 속물이어서

00:26:40.074 --> 00:26:43.202

나도 타고 싶어,
마음이 흔들립니다.

00:26:43.302 --> 00:26:43.745

그렇죠?

00:26:43.845 --> 00:26:45.844

적금 깨고 차 하나 지를까?

00:26:45.944 --> 00:26:47.469

마음이 흔들리죠.

00:26:47.569 --> 00:26:50.400

그런데 이 아파트이아의
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

00:26:50.500 --> 00:26:54.189

붕 지나가면 차가 빠르군,
이러고 마는 거예요.

00:26:54.289 --> 00:26:59.417

갖고 싶어, 그런 불필요한 정념과
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

00:26:59.517 --> 00:27:04.782
바로 진정한 이성적인 사람이고
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느냐.

00:27:04.882 --> 00:27:09.432
이런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
철학이 되겠습니다.

00:27:09.532 --> 00:27:11.073
그런데 다 맞는 말씀들이죠.

00:27:11.173 --> 00:27:14.718
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
그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

00:27:14.818 --> 00:27:20.685
잘 보여주는 그런 고대 서양
철학들입니다, 아시겠죠?

00:27:20.785 --> 00:27:24.039
조금 많이 가르쳐드린 감이
없지 않은데 한번 해봤습니다.

00:27:24.139 --> 00:27:25.717
다음요.

00:27:26.837 --> 00:27:30.410
이제 중세 기독교를
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00:27:30.510 --> 00:27:32.945
고대 다음이 중세죠?

00:27:33.045 --> 00:27:36.603
그런데 이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
당연한 말로 왜 하고 있지?

00:27:36.703 --> 00:27:41.962
그렇게 느낄 텐데, 교회 안 다니는
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

00:27:42.062 --> 00:27:45.897
이 서양의 중세는 완벽한
기독교의 시대였습니다.

00:27:45.997 --> 00:27:51.645
신 중심의 시대가 중세인데 교회를
생각하시면 돼요, 성당과 교회.

00:27:52.157 --> 00:27:57.304
당연히 기독교 신자들은
하느님을 믿는 신앙심을 통해서

00:27:57.404 --> 00:28:03.369
영원하고 완벽한 존재인 이 인격
신,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.

00:28:03.469 --> 00:28:05.377
또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

00:28:05.477 --> 00:28:10.327

나 죽어서 하느님 아버지가
계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.

00:28:10.427 --> 00:28:12.664
두 글자로 구원인 거죠.

00:28:12.764 --> 00:28:14.198
이게 행복인 거죠.

00:28:14.298 --> 00:28:21.018
이건 중세 때나 지금 2018년
대한민국이나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,

00:28:21.118 --> 00:28:25.609
기독교 신자들은 당연히
이게 궁극적인 행복입니다.

00:28:25.709 --> 00:28:26.974
당연한 거 아닙니까?

00:28:27.074 --> 00:28:32.500
수능 만점도 행복이겠지만 기독교
신자라면,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천이고

00:28:32.600 --> 00:28:36.846
신앙심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돈
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

00:28:36.946 --> 00:28:39.912
궁극적인 행복은 당연히
천국 가는 거죠.

00:28:40.012 --> 00:28:46.203
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에서는
당연한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.

00:28:46.303 --> 00:28:51.521
이건 완전히 기독교적인 종교 윤리적
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

00:28:51.621 --> 00:28:56.659
다음 중세가 몰락하고 이제
근대와 현대로 넘어가겠죠?

00:28:56.759 --> 00:29:03.050
이 근대 서양에서는 행복이 뭐냐,
이제 드디어 자유와 평등,

00:29:03.150 --> 00:29:07.964
천부인권, 기본권,
이런 권리, 내 자유.

00:29:08.064 --> 00:29:12.289
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호받고
보장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

00:29:12.389 --> 00:29:17.544
그게 인간의 행복이 아니겠느냐,
그런 어떤 민주주의적인,

00:29:17.644 --> 00:29:22.894

자유주의적인 인권의 개념이 이
근대 때는 자유주의 시대니까

00:29:22.994 --> 00:29:26.647
좀 더 중요한 행복의
기준이 되는 것이고.

00:29:26.747 --> 00:29:30.340
최근 20세기, 21세기
현대로 넘어오게 되면

00:29:30.440 --> 00:29:33.236
이제 행복의 개념이 되게
복잡 다양해지는 겁니다.

00:29:33.885 --> 00:29:37.557
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
되고 건강해야 되고

00:29:37.657 --> 00:29:40.008
직업도 있어야 되고
취미도 있어야 되고

00:29:40.108 --> 00:29:44.482
인간관계도 많으면 좋겠고
사회복지도 받고 싶고

00:29:44.582 --> 00:29:46.905
되게 많이 복잡해지는 겁니다.

00:29:47.005 --> 00:29:51.132
그만큼 역사가 진보되고 점점
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

00:29:51.232 --> 00:29:57.356
행복의 가치 기준, 척도, 이런
것들도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.

00:29:57.456 --> 00:29:58.579
어렵지 않죠?

00:29:58.679 --> 00:30:02.581
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
되겠습니다.

00:30:03.983 --> 00:30:06.546
이제 확인해드릴게요.

00:30:07.524 --> 00:30:14.026
거의 윤리와 사상, 철학 수업을 한번
간단하게 들어보셨다고 보시면 돼요.

00:30:14.126 --> 00:30:15.018
아시겠죠?

00:30:15.118 --> 00:30:17.705
아마 고2, 고3 선택
과목으로 가시게 되면

00:30:17.805 --> 00:30:22.116
지금 저희가 살짝살짝 배웠던

이 사상가분들을 끝까지

00:30:22.216 --> 00:30:27.155
그 철학적인 내용을 다 배우는
기회가 올 겁니다, 곧.

00:30:27.255 --> 00:30:27.848
아시겠죠?

00:30:27.948 --> 00:30:29.065
갑니다.

00:30:29.165 --> 00:30:31.762
첫 번째, 용어를 써봐라.

00:30:31.862 --> 00:30:32.821
읽어볼게.

00:30:32.921 --> 00:30:36.650
사람은 누구나 OO 하게
살고 싶다고 말한다.

00:30:36.750 --> 00:30:43.093
OO의 사전적인 정의란 충분한 만족,
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한 상태다.

00:30:43.193 --> 00:30:44.790
재밌네요?

00:30:44.890 --> 00:30:49.224
이거 방금 배운 거 고대
아리스토텔레스는, 답이 나오죠?

00:30:49.324 --> 00:30:51.662
모든 건 목적을 지니고 있다.

00:30:51.762 --> 00:30:54.135
그런데 목적의 목적의 목적의 목적.

00:30:54.235 --> 00:30:56.441
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?

00:30:56.541 --> 00:30:58.278
행복이다.

00:31:01.068 --> 00:31:01.886
이해되겠죠?

00:31:01.986 --> 00:31:05.580
그래서 아리스토텔의 철학을
행복론적 윤리라고 해요.

00:31:05.680 --> 00:31:11.121
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
현실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죠.

00:31:11.221 --> 00:31:12.347
이해되겠죠?

00:31:12.447 --> 00:31:14.971
좋고요, 다음 두 번째요.

00:31:16.481 --> 00:31:21.101

알맞은 말을 체크
표시해봐, 라는 거군요.

00:31:21.201 --> 00:31:22.090

해보죠.

00:31:22.190 --> 00:31:28.636

1,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
당시 우리 국민들에게

00:31:28.736 --> 00:31:32.668

대한 독립 만세, 이게 행복의
기준이었겠죠, 당연한 거죠.

00:31:32.768 --> 00:31:35.333

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
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

00:31:35.433 --> 00:31:41.741

행복이라는 것은 시대와 역사와
상황, 장소, 맥락,

00:31:41.841 --> 00:31:44.363

분위기에 따라서 다
다를 수 있습니다.

00:31:44.463 --> 00:31:48.316

물론 행복이라는 건 절대적
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

00:31:48.416 --> 00:31:52.515

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
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.

00:31:52.615 --> 00:31:53.236

그렇잖아요.

00:31:53.336 --> 00:31:59.898

왜냐하면, 1910년 이후 일본의 식민치하에
있었던 우리 선배님들 조상님들,

00:31:59.998 --> 00:32:03.514

이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당연히
대한 독립 만세입니다.

00:32:03.614 --> 00:32:08.886

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는 게 이
시대에서는 최고의 행복이었겠죠.

00:32:08.986 --> 00:32:13.337

그러니까 이진 지역적인 기준이
아니고 당시 일제치하라는

00:32:13.437 --> 00:32:19.799

시대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행복의
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

00:32:19.899 --> 00:32:20.645

이해되죠?

00:32:20.745 --> 00:32:22.709

다음 두 번째요.

00:32:22.809 --> 00:32:27.366

마실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.

00:32:27.466 --> 00:32:29.358

그러면 이걸 당연히 뭐겠습니까?

00:32:29.458 --> 00:32:34.931

이 사막이라는 어떤 자연 환경적인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

00:32:35.031 --> 00:32:37.988

인문환경이 아니고 이런 건 자연환경이죠.

00:32:38.088 --> 00:32:38.906

그렇잖아요.

00:32:39.006 --> 00:32:42.604

대부분이 사막이고 가끔가다 초원 있고

00:32:42.704 --> 00:32:46.716

가끔가다 오아시스 있고 연평균 강수량 거의 없고

00:32:46.816 --> 00:32:51.073

농사도 안 되고 맨날 이사 다니는 초원 생활하고, 그렇잖아요.

00:32:51.173 --> 00:32:56.301

이런 것들은 자연 지리적 환경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.

00:32:56.401 --> 00:33:00.470

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간적 또는 인간들이 만든

00:33:00.570 --> 00:33:05.151

어떤 인문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행복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

00:33:05.251 --> 00:33:08.932

그분들은 당연히 우리 동네도 비가 많이 왔으면...

00:33:09.032 --> 00:33:12.680

우리 동네도 사막 말고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농사짓고

00:33:12.780 --> 00:33:14.839

그냥 정착해서 살았으면...

00:33:14.939 --> 00:33:17.837

이러한 자연 환경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

00:33:17.937 --> 00:33:21.279

행복의 기준이 달라질
수가 있는 거죠.

00:33:21.379 --> 00:33:22.149

이해되겠죠?

00:33:22.249 --> 00:33:25.350

시대와 장소, 자연환경, 인문환경.

00:33:25.450 --> 00:33:30.963

즉 행복의 판단 기준과 가치척도는
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00:33:31.063 --> 00:33:32.345

아시겠죠?

00:33:32.445 --> 00:33:34.133

좋아요.

00:33:34.233 --> 00:33:42.586

다음 세 번째, 비슷한
문제인데 체크해볼게.

00:33:42.686 --> 00:33:43.504

첫 번째요.

00:33:43.604 --> 00:33:46.893

지배적인 가치라든가 지배적인 사상.

00:33:46.993 --> 00:33:50.623

이런 가치와 사상과 같은 어려운
말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

00:33:50.723 --> 00:33:54.196

이건 시대적인 상황에
좀 더 가깝죠.

00:33:54.296 --> 00:33:58.239

지역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공간적인
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

00:33:58.339 --> 00:34:01.818

지배적인 가치라든가 사상
같은 건 시대 상황과

00:34:01.918 --> 00:34:06.804

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지
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조건 때문에

00:34:06.904 --> 00:34:10.891

가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
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

00:34:10.991 --> 00:34:12.144

맞죠?

00:34:12.244 --> 00:34:13.505

다음 두 번째요.

00:34:13.605 --> 00:34:16.097

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사회변동도

00:34:16.197 --> 00:34:19.431

당연히 시대 상황과 관련성이
높을 수밖에 없죠.

00:34:19.531 --> 00:34:22.975

이게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
거 아닙니까, 맞죠?

00:34:23.075 --> 00:34:24.162

다음 세 번째요.

00:34:24.262 --> 00:34:27.022

기후와 지형, 이게 뭐겠습니까?

00:34:27.122 --> 00:34:29.408

그럼요, 이건 지역적인
여건인 거죠.

00:34:29.508 --> 00:34:34.268

그리고 이 기후라든가 지형 같은
것은 자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.

00:34:34.368 --> 00:34:35.272

오케이?

00:34:35.372 --> 00:34:37.868

다음, 종교와 문화.

00:34:37.968 --> 00:34:42.693

역시나 종교와 문화라는 것도
지역적인 여건에 근거하는 거죠.

00:34:42.793 --> 00:34:43.536

그렇잖아요.

00:34:43.636 --> 00:34:46.212

그리고 산업 기반, 이
산업의 기반이라는 것도

00:34:46.312 --> 00:34:50.923

당연히 지역적인 여건에
좀 더 가깝겠죠.

00:34:51.023 --> 00:34:51.877

이해되죠?

00:34:51.977 --> 00:34:54.025

어려운 건 아닙니다.

00:34:54.125 --> 00:34:58.176

다음요, 마지막 O, X
마무리해볼게요.

00:34:59.982 --> 00:35:07.062

1, 시대 상황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
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00:35:07.162 --> 00:35:12.414

아까도 한번 봤지만 우리는

깨끗한 물을 많이 먹어봤으면

00:35:12.514 --> 00:35:14.876

이거는 진정한 행복과는
약간 거리가 멀죠.

00:35:14.976 --> 00:35:17.567

왜냐하면, 편의점 가서 500원
내고 사 먹으면 돼요.

00:35:17.667 --> 00:35:23.424

그런데 아프리카 사막 지역은 당연히
그들의 자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

00:35:23.524 --> 00:35:29.168

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깨끗한 마실 물을
많이 확보하는 게 행복일 수 있잖아.

00:35:29.268 --> 00:35:34.734

1910년대 우리 조상님들은
주권회복이 진정한 행복이었지만

00:35:34.834 --> 00:35:39.430

지금 2018년 우리의 행복은
주권 회복은 아니잖아요.

00:35:39.530 --> 00:35:40.057

이해되겠죠?

00:35:40.157 --> 00:35:44.174

그러니까 시대적, 지역적, 역사적
상황, 자연환경, 인문환경.

00:35:44.274 --> 00:35:47.961

이런 다양한 요인들에
근거해서 행복의 기준은

00:35:48.061 --> 00:35:52.777

상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게
되는 겁니다, 되겠지?

00:35:52.877 --> 00:35:54.055

다음 두 번째,

00:35:54.155 --> 00:35:58.493

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
행복의 의미를 찾기보다는

00:35:58.593 --> 00:36:02.154

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때
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.

00:36:02.254 --> 00:36:06.009

이건 뭐 인생이 남과 비교하기
위해서 사는 겁니까?

00:36:06.109 --> 00:36:07.051

아닌 거잖아요.

00:36:07.151 --> 00:36:11.764

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

자아존중감의 개념이에요.

00:36:11.864 --> 00:36:16.002

내가 마티즈를 타고 최적 샘이
만약에 람보르기니를 타면

00:36:16.102 --> 00:36:17.047

오, 나는 불행해.

00:36:17.147 --> 00:36:19.256

이건 아니라는 겁니다.

00:36:19.356 --> 00:36:19.978

이해되겠죠?

00:36:20.078 --> 00:36:22.186

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.

00:36:22.286 --> 00:36:25.884

그런데 만드시 모든 행복의
기준이 타인과 비교했을 때

00:36:25.984 --> 00:36:29.767

내가 좀 더 우월하다,
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.

00:36:29.867 --> 00:36:31.278

아시겠죠?

00:36:31.378 --> 00:36:40.027

다음, 남에게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나
자신만 만족한다면, 이건 아니죠.

00:36:40.127 --> 00:36:42.701

나 자신만 만족하면 나는 행복해.

00:36:42.801 --> 00:36:44.891

이건 완벽한 이기주의입니다.

00:36:44.991 --> 00:36:46.745

타인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면

00:36:46.845 --> 00:36:50.963

그건 당연히 도덕적인 윤리적
관점으로 비추어봤을 때

00:36:51.063 --> 00:36:54.808

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
거죠, 그렇잖아요.

00:36:54.908 --> 00:36:57.732

도덕적 관점에서 떳떳하고 정당해야

00:36:57.832 --> 00:37:00.919

그 행복도 떳떳하고
정당해지는 겁니다.

00:37:01.705 --> 00:37:04.932

어떤 기준 같은 걸 완전히
무시하고 나만 만족하면 돼.

00:37:05.032 --> 00:37:07.107
이건 이기주의죠.

00:37:07.207 --> 00:37:08.605
이해되겠죠?

00:37:08.705 --> 00:37:10.558
되게 쉬운 내용입니다.

00:37:10.658 --> 00:37:12.068
여기까지고요.

00:37:12.168 --> 00:37:15.489
이 두 번째 테마가
행복론이라는 테마였습니다.

00:37:15.589 --> 00:37:19.138
거의 철학 윤리 쪽 영역이라고
보는 게 맞고요.

00:37:19.238 --> 00:37:22.831
배우신 것처럼 어려운 내용은
또 솔직히 없어요.

00:37:22.931 --> 00:37:25.002
충분히 할 수 있는
그런 주제였습니다.

00:37:25.102 --> 00:37:26.325
아시겠죠?

00:37:26.425 --> 00:37:27.191
이제 마치고요.

00:37:27.291 --> 00:37:32.191
다음 시간은 1단원 마지막 세 번째
테마에서 또 정리해드릴 거고요.

00:37:32.291 --> 00:37:34.003
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

00:37:34.103 --> 00:37:36.548
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
인사 올리겠습니다.

00:37:36.648 --> 00:37:37.525
수고하셨습니다.

00:37:37.625 --> 00:37:39.991
물러가겠습니다.